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제2의 중국, 개성신화 창조를 위하여

머릿글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 이승남

11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고려대 교수 함성득

커버스토리 (주)다산 회장 운영상

다산기행 주5일넷(주) 이용원

지자체특강 행정자치부 차관 최양식

발행인 편지

세상을 보는 눈 남서울대 교수 유영대

회원 & 연구원소식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Culture Special

구건서의 HR칼럼 노무법인 B&K 대표 구건서

Health Info 서울대병원 웃음치료간호사 이임선

문용린칼럼

표지인물 운영상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2007 November

11

등록번호 [제100]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7년 11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K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 3500(F) F.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탐정 이계경 pas@khdi.or.kr 인쇄 : (주)동명인쇄

고유가 시대, 가스비 다이어트 S라인 콘덴싱



돈 먹는 구식 보일러는 가라!



신기술
가스비
최고
35%
절감



가스비 다이어트 하는 번호 ☎1588 - 8577

가스비 다이어트 S라인 콘덴싱

유럽특허출원

외적인 노화방지와 내적인 노화방지

이승남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

요즘 30대뿐만 아니라 60~70대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 중의 하나가 바로 젊게 보이는, 소위 '동안'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처지게 되고 머리카락도 빠지게 된다.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외적노화'라 한다. 외적인 노화를 덜 나타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미용성형의 필요성이다.

미용성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술적인 방법과 다른 하나는 비수술적인 방법이다. 수술적인 방법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얼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후에 피부를 당겨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꿰매주는 것이다. 즉각적인 효과와 함께 몇 년간은 지속될 수 있지만 수술흉터가 남고 몇 년 뒤에는 다시 시술해야 한다.

비수술적인 방법은 필러라는 천연성분의 자연히 흡수되는 물질을 사용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굵은 주름을 채워서 없애주고, 피부에 맞는 더마톡신을 사용하여 처진 피부나 주름을 당겨주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잘한 주름이나 늘어진 피부는 피부에 콜라겐과 비타민을 직접 공급하는 메조리프팅과 마스크케어, 특수 고주파와 적외선을 이용하여 콜라겐의 재생을 도와서 해결할 수 있다. 늘어진 턱살과 볼살도 실로 된 레이저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딸기코나 얼굴의 실핏줄이 늘어난 모세혈관 확장증도 부분적으로 바르는 마취크림을 사용한 후에 2~3차례의 간단한 엔도레이저 시술로 대부분 완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노화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로 내적 노화방지이다.

내적인 노화방지는 노화를 조금씩 늦추어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내적 노화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장호르몬, 남성 또는 여성 호르몬, 비타민·미네랄 보충, 영양요법, 운동, 중금속 제거, 활성산소 제거 등이다.

성장호르몬은 20대 후반부터 매 10년마다 약 15% 정도 감소하게 된다. 성장호르몬이 남보다 빨리 감소하게 되면 노화현상이 빨리 나타나게 된다. 필자의 병원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성장호르몬 부족 현상을 보인 경우가 29세의 여성이다. 피곤하고 기운 없고 의욕이 없으며 불면증이 있고 매사가 귀찮고 건강증이 생기고 주름도

빨리 생기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는 환자였다. 종합검사상 다른 이상은 없었고, 성장호르몬 감소와 활성산소가 증가하였다. 활성산소는 모든 사람에게서 생성이 되는데 과도하게 되면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뿐만 아니라 암도 발생시키고, 노화도 빨리 진행하게 만든다.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주름, 기미, 주근깨가 생기고 심지어는 피부암도 생기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다.

이 환자는 성장호르몬 치료 2주만에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성장호르몬 부족은 근육을 줄이고 복부비만과 내장비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면 뱃살이 늘어나게 된다. 근육량이 떨어져서 근력도 줄어들고 신진대사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남성호르몬이나 여성호르몬 부족은 성기능의 약화와 성욕도 감소시킨다.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성장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많이 준다. 중금속 중 수은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카드뎀은 이파이아피아병(아프다아프다병)을 야기하며, 알루미늄은 건망증을 일으킨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족은 만성피로와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력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 노화방지를 같이 시행해야 외적 노화방지요법도 더 오래 지속되고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사업에 경영전략이 필요하듯이 건강에도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남보다 최소한 10년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건강한 노화방지인 것이다. 걸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속도 알찬 건강이 진짜 건강이다. **KBIBI**



이승남 원장

1956년 생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국립암센터 암고위 지도자과정, 포천중문대 대체의학 과정, 멕시코 티유아나, 오아시스 병원 등에서 연수를 마쳤다. 대한체형의학회 회장, 국제자연치유의학연맹 이사,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이사, 서울아산병원 및 한양대병원 외래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며,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회 '나비' 회원이다. 현재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11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안내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과 리더의 역할

1523회 11월 1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과 관련한 정부시책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윤리경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도입은 기업내 부패척결과 기업 이미지지 제고의 중요성을 인지한데 기인한다. 또 CEO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윤리경영 필요성 자각 및 강력한 추진의지 표명이 윤리경영의 도입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들 중 윤리경영의 성과를 낸 기업의 상당수가 CEO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된 가운데, 윤리경영 전담 부서를 설치해 윤리강령 및 세부 지침 작성, 중장기 실천전략 수립, 교육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포스코의 윤리경영 실천사례가 우수사례로써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3년 윤리규범을 선포한 가운데 실질적인 기업윤리 실천을 위해 전담 부서 설치 및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업윤리기구인 ECOA의 제15차 연례 콘퍼런스에 초청 받아 '포스코 세션'을 갖고 윤리실천 활동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포스코 기업윤리실천사무국과 감사실을 관장하고 있는 김수관 상무를 초빙하여 기업의 윤리경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윤리경영 사례를 들어보고 기업문화로 정착하기까지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수관
포스코 상무

부산대 상대 졸업
1975년 포스코 입사
포항공대 대학본부 본부장
포스코 기업윤리실천사무국
포스코 감사실 관장 상무

뇌교육을 통한 두뇌경영법

1524회 11월 8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뇌는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뇌파가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도 시작된다. 뇌파가 멈추면, 우리의 삶도 끝난다. 우리 삶 전체가 의식과 무의식의 기억으로 뇌에 기록되고 저장된다.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각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능력도 지니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 자기만의 변화를 창조하고 싶은 사람,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세상을 밝히고 싶은 사람, 그 답은 우리의 뇌 안에 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뇌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뇌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공통본모다. 만약 우리 모두가 건강, 행복, 평화를 위해서 뇌를 사용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일지 이승헌 총장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문화를 세계화한 뇌철학자이며, 뇌교육의 창시자이다. 지난 30년간 기체조, 국학기공, 뇌호흡, 정충호흡, 장생보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널리 교육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 관공서, 기업, 군대, 학교에서 심신수련과 뇌교육으로 채택되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세계적인 명성가로 지난 2000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50인의 영적 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한 이승헌 총장을 초빙하여 영혼을 울리고 뇌를 깨우는 명쾌하고 감동적인 뇌경영에 대해 들어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승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단국대 체육교육학과 졸업 | 美 유인대 명예한의학 박사 | 85 (주)단월드(舊단학선원) 설립 | 한국인체과학연구원 및 한국인체과학학회 설립 | (사)홍익문화원 설립 및 초대원장 | 세계지구인연합회(WEHA) 회장 | 국학원 설립 및 명예원장 | 한국뇌과학연구원 원장 | 국제뇌교육협회 회장

<상훈>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국방부장관 감사장, 국민훈장 석류장 외
<저서> 뇌호흡, 한국인에게 고함, 아이 안에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 걸음아 날 살려라 외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

1525회 11월 1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건축을 건축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축은 철저히 그 사회가 가진 삶의 실재성과 얽혀 있다'는 점이다. 건축은 이렇듯 그 사회가 가진 삶의 실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물적 환경을 이루는 실재 그 자체로서 있게 되는 것이며, 이 사이에서 건축은 다소 긴 시간의 생산과정을 겪게 된다.

승효상이라는 이름은 건축계에서는 이미 새로울게 없는 인물이다.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인 김수근과 김중업의 영향력 아래 입문한 그는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중에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건축가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전사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 받는 영광을 누렸고, 얼마 전에는 '북경 클럽하우스' 설계를 통해 멀리 상해까지 그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현재는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일어나는 수많은 개발사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북경 천안문 광장 전문대가 일대를 작업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던 공간적 구성을 살려 현대적인 프로그램에 매치시킴으로써 원래 도시가 가졌던 기억이 공유되면서 새로운 도시생활이 영유되는 역사적인 아시아의 중심, 북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건축은 인간이 사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 건축가 승효상 이로재 대표를 초빙하여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 새겨진 건축정신과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 공학 석사 | 공간연구소 대표이사 | 북린대학 건축인테리어 디자인학부 객원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객원교수 | 김수근문화재단 이사, 사무총장 | 경주고도보존회 이사

- 〈상훈〉 대법원장 표창, 한국건축가협회상, 한국건축문화대상, 김수근문화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외
- 〈저서〉 이 시대 우리의 건축, 지혜의 도시 지혜의 건축, 비움의 구축 외
- 〈작품〉 한국종합전시장, 청주국립박물관, 서울법원 종합청사, 주미 한국대사관저, 베이징 M-City 마스터플랜, 북경 전문대가 외

유교 경전과 리더십

1526회 11월 2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한다. 위대한 고전작품만큼 리더십에 좋은 교과서는 없다. 실제로 많은 지도자들이 고전 작품을 통해서 리더십에 관한 통찰력을 길러왔다.

서구문화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성경이라면 동양문화의 발전 배경에는 유교의 경전 즉, 사서오경(四書五經)이 있다. 그 중에서도 논어(論語)는 유가(儒家)의 성전(聖典)이라고도 할 만큼 동양 고전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 논어에는 자애와 효도라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교감이 있고, 예와 충성이라는 주군과 신하 사이의 의무가 있다.

유교의 경전에서는 지도자가 갖춰야할 첫 번째 덕목으로 하늘의 도를 실천하는 군자(君子)의 모습을 꼽는다. 그리고 군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는 것이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리더들이 모여서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학당이 있다. 하병국 선생이 대표로 있는 금곡서당(金谷書堂)으로 이곳에는 국회의원, 장·차관, 기업 CEO, 대학교수, 판검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여 대학과 논어를 중심으로 사서오경을 공부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구한말의 한학자인 지동(智棟) 선생 문하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30여년간 사서오경의 교수지침서를 집필해오고 있는 하병국 금곡서당 대표를 초빙하여 유교 경전을 통한 삶의 지혜와 리더의 덕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하병국
금곡서당 대표

금곡(金谷) 河然淳, 字는 秉局 | 1947년 경남 진주 출생 | 4세부터 19세까지 지동(智棟) 선생 문하에서 유학 공부 | 20세에 상경 후 계속 유학에 전념 |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지침서 집필을 목표로 30여년간 四書五經 교수지침서를 다수 집필해 오고 있음 | 면암학회 이사장 | 한국공자학회 회장

지구온난화와 환경

1527회 11월 2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근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이면 지구의 기온이 지금보다 최고 4도까지 올라가 북극의 빙산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사라지는 환경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공식 발효시키기로 하는 등 환경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는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짐'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도요타가 GM을 누르고 세계 최대 자동차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의 힘이 컸다. 경쟁업체보다 앞서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한 도요타의 사례는 환경경영이 곧 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환경은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니라 활용할 비즈니스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국내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96년 녹색경영을 선포하고 생산공정 및 제품 녹색화에 매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삼성지구환경연구소 황진택 상무를 초빙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여건 변화를 알아보고, 환경경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황진택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상무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아이오와대 경제학 석사 | 美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 한국외환은행 근무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근무 | 세계산업계환경협의회(WBCSD) Liaison Delegate | 환경·에너지관련 정부 자문위원(환경·산자·외교·과기부) | 환경경제학회 감사 | 환경정책학회, 실내환경학회 이사

- 〈저서〉 산업계에서 바라본 무역과 환경문제, 21세기의 화두-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가는 길 외

2007년 대선 감상법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옛 날에는 대통령이 통치하기 편했다. 사회가 단순했고 권력을 지향하는 세력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통치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군인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군부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획득했다. 그래서 장관 자리의 절반 이상을 군인 출신들이 차지했다. 자연스럽게 육군사관학교라는 명문대학이 탄생했다.

그런데 군의 세력이 막강해지자 또 다른 지지 세력을 발굴했고, 그것이 관료였다. 군 대신 관료를 획득함으로써 장관의 반 이상이 관료로 채워지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관료를 육성하는 서울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부상했다. 이것이 '대통령과 군부'에서 '대통령과 관료'로의 패러다임 변화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조정자로서 타협과 협상 능력 갖고 국정 운영해야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누려왔다. 총, 갈, 여당의 공천권, 엄청난 정치자금,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지역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의 리더십은 명령하고 통제하는 '행정적 리더십'이었다. 명령자로서 조정하고 명령하는 행정적 리더십이 결국 성공의 길이였다. 여러분들도 그런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자라셨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의 현실은 20년 전에 방향을 잘 맞추고 인풋을 잘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생각해야 할 20년 후는 오늘 어떻게 인풋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주어질 것인가.

명문대학이 변했다. 예전 서울대 법대는 삼수를 해서라도 가려고 했다. 사회 엘리트 계층으로 커 가는데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은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한다. 이 대학은 탤런트, 영화배우, 코미디언 등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학교이다. 사회가 알아주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장관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되는지를 관찰했는데, 이제 장관이 되는 사람들은 군인도 관료 출신도 아니다. 지금은 그 누구든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모든 정치의 중심이 군도 관료도 아닌 국회로 넘어왔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 국정운영을 위한 성공하는 리더십의 길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명령해서는 어느 국회의원도 받아 들일 사람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끝나고 제약적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 중국의 경우 새 질서가 생기기까지 길게는 100년, 짧게는 20년 이상 걸렸다. 한국 역시 제왕적 질서가 무너지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전이기간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미래는 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기간에 달려있다.

앞으로의 대통령은 '협상하고 타협하는 능력'이 높아야 한다. 대통령의 역할은 명령자가 아니라 '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야당 당수들과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향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 여부는 여야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즉, 행정리더십보다는 입법리더십이 강조돼야 한다.

2007 대선은 후보자의 품격과 경제비전이 결정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라는 큰 흐름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볼까 한다. 현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사람은 세 명인 것 같다. 이명박 후보, 문국현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 정도이다. 2002년 대선에서는 워낙 오래된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시기여서 조금은 깨끗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언제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큰 흐름을 타고 간다.

이번 대선은 노 대통령 때문에 생겨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나는 '불안정한 사람은 싫다, 조금은 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물건에도 격이 있듯이 품격있는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손발을 적게 움직이는 사람,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비전이다. 노 대통령의 경제 목표는 7% 성장률이었다. 그러나 지금 4.8~4.9%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갭이 매

년 생기다 보니 다음 정부에서는 적어도 한 두 번은 7% 경제성장을 기록해야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앞으로 후보자들에게는 '품격', '경제비전'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보수파에서는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정된 보수가 나와야 하고, 진보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고 통합된 진보가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

보수파의 대표로 나온 이명박 후보는 경제비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다. 그런데 50%의 인기를 유지하면서도 왜 '저 사람 안 될 거다', '무속인들이 말하더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품격 면에서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다. 아무튼 손학규, 정동영, 이혜찬 예비후보 중에서 한사람이 될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품격 면에서는 이명박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경제면에서는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여권의 후보단일화가 변수 될 것

여권의 단일화 과정은 11월초나 11월말까지 갈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살펴볼 것이 지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첫 번째가 '세대차'였다. 젊은 세대가 진보를 지지했고, 노년층은 보수를 지지했다.

인구비례로 하면 2002년 20~30대가 약 50%, 50대가 30%였다. 투표율은 젊은 세대가 약 60%, 50대 이후가 80%이다 보니 젊은 세대의 효과가 컸다. 2007년은 20~30대에서 40대로 넘어간 인구를 빼고 냈더니, 20~30대가 43%, 50대 이상은 44%가 되었다. 여기에 2002년의 투표율 60%와 80%를 곱하면 이번에는 세대차이가 그렇게 없다. 세대는 이제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무응답이 많다. 6월에 한나라당 지지율이 47%, 열린우리당 10%, 무응답이 34.4%였다.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무응답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을 지지한다고 하면 창피한 일이 되고, 지방색이 나타나는 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무응답을 하는 것이다.

지금 여론 조사기관의 응답률이 20~30%로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 그걸 믿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추석 이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4.7~49.7%이다.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다 합쳐서 25%, 무응답이 25%이다. 결국 여권이 단일화만 이룩하면 이번 대선도 8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2~3%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권에서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제3후보인 문국현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지난 9월 29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벌어졌다. 광주·전남 표는 부정적인 면에서 몰표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학적으로 보면, 인

구가 많지 않은 호남의 단합도를 높이기 위한 대단히 선택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전남 경선에서는 절대 강자를 만들지 않았다. 몰표나 전략적 투표로 정동영 후보가 표의 70~80%를 만들었다면, 문국현 후보는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강자는 출연하지 않았고, 투표 결과 또한 5~10% 차이가 났다.

이 말은 제3후보 특히, 진보면에서 문국현 후보에게 상당한 길을 터 준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은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미국에 갔었다. 그러나 문국현 후보와 경선을 연계해 발언함으로써 문국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앞으로 문국현 후보는 끝까지 갈 것이다. 조직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가서 여론으로 몰아가야 한다. 국회의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다. 결국 조직으로 가는 사람과, 여론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조직으로 가는 사람은 경선이 유리하고, 여론으로 가는 사람은 경선이 불리하다. 그래서 제3후보로서는 끝까지 자기 조직,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으로서는 제3후보의 지지율이 5% 이상 넘지 않게 놀려야 한다. 지지율이 5%를 넘으면 금방 10%까지 가게 된다. 또한 새로운 후보는 경쟁했던 사람과의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지금은 이명박 후보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자기네 싸움에서 내부의 단합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탄생하면 인기도는 금상승할 것이다. 다만 그때 광주·전남 분들이 엄청난 고민을 할 것이다. 그게 희망이 있거나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투표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 실질 지지율은 35%대로 봐야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인기가 50%가 아니라, 여권이 단일화되는 순간 15% 정도는 빠져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의 인기를 35%대로 생각하고 15% 중에 얼마나 내가 가져와야 되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운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사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 대다수는 대운하 정책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대운하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집착하면 할수록 패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문국현 후보로서는 남은 기간 언론의 지지도를 높여줘야 한다. 기업에 있다가 정치로 온 경우인데, 'CEO대통령'이 잘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전 세계의 CEO대통령을 보면 태국의 탁신총리,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도 모두 감옥에 갔다 왔다. 공적인 조직과 사적인 조직은 상당히 다르다. 기업의 윤리, 경영스타일,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 100% 실패하게 돼있다.

이번 2007 대선은 '이명박 선거'다. 그런데 어떻게 선거가 결정되는가? 이명박 후보가 실수하면 다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이고, 이명박 후보가 실수하지 않으면 당선되는 것이다. 지난 경선까지는 '노무현 선거'였다. 노무현을 비판하고, 노무현이 실수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선거였다. 하지만 이제 판은 '이명박 선거'로 바뀌어서 이명박 후보가 검증에서 걸리고, 실수하면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노무현의 상대방으로써 이명박 후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걱정은 하나다. 바로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자질과 품격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진실한 모습은 위기상황에서 나타난다. 그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손학규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 때마다 도망갔다는 것이다. 도망만 안 갔더라도, 한번 도망간 것은 이해하더라도,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서적 불안성을 보자면, 가장 불안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보다 더 불안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좀 더 불안한 분이 이명박 후보이다. 무서운 사람이 없었고, 특히 선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 젊은 나이에 CEO가 되었다.

지금 이명박 캠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후보의 약점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꾸짖을 부하가 없다는 것이다. 쌓아 올라가기는 쉽지만 무너지는 것 또한 너무 쉬운 구조이다. 기업 CEO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CEO를 꾸짖어 줄 부하의 존재 여부이다. CEO의 약점을 앞에서 말하고 고쳐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언제나 참모는 현자(賢者)로 꾸미라고 했다.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많이 했던 연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대통령을 많이 만들어 낼까'였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 밑에는 성공한 장관이 많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이 성공한 장관을 많이 만들어냈는가를 연구했는데,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내 연구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성공한 대통령 밑에서 성공한 장관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장관이 많아야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훌륭한 참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자질 공식은 과학+통찰력=예술적리더십

이제는 우리 대통령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뭔가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한다.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성공해야지 보다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시작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준비과정을 볼 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대선 정국의 문제점은 이렇다. 엄마와 딸이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두 사람에게 같은 요리책을 주면 딸은 요리책에 나오는 대로 찌개를 만든다. 그런데 엄마는 손맛으로 그냥 만든다. 그래도 노력한 딸보다 엄마가 쉽게 만든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 딸은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했고, 엄마는 과학이 아닌 예술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예술과 과학의 큰 차이점은 예술은 과학에 연륜과 경험이 쌓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통찰력이다. 과학과 통찰력이 합쳐질 때 예술이 된다. 이러한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의 리더십이 빛난다고 한다. 국가, 사회, 기업, 학교를 경영하는 리더십의 요체는 예술이다. 즉, 통찰력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 모두가 이러한 감을 가졌으면 한다.

잘되는 조직, 사회, 나라에는 '늙은 젊은 사람'이 엘리트 계층에 많다. 반대로 못되는 조직, 사회, 나라에는 '젊은 늙은 사람'이 많다. '늙은 젊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은 조금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성공과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 생물학적 나이는 많을 수 있지만 실제 생각의 나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진짜 젊음과 늙음을 비교하는 것은 사고의 차이 즉, 사고의 유연성이다. 남의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젊음이다. 우리가 점점 늙을수록,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들은 자기 옆에 '늙은 젊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 사회 경험이 풍부하면서 통찰력이 높고, 사고력이 유연한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실패하는 대통령들은 자기 나이보다 어린 사람을 참모로 둔다. 어린 참모들 중에는 사회 경험이 없고, 비록 지식은 풍부하지만 남이 비판을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젊은 늙은 사람'들이 많다.

차기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아젠다 마련해야

앞으로 후보자들이 할 일은 리더십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통치의 근본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조정하고, 협력과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하며 또 하나, 비전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삶의 이유와 '내 인생의 유산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철학이 현실화 될 때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지금 후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 만나 봐도 자기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잘 모른다.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잘 안 서는 것이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할까? 이제는 비전을 물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에게 비전을 바라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지금 후보들, 그리고 그 참모들은 비전을 못 만들어 낸다. 유일한 방법은 사회가 비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사회가 만든 비전을 그들이 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못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로 건국형성을 이룩했다. 그것이 사회적 아젠다이다. 이승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 말에는 동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 보자, 100억불 수출, 1000불 국민 소득"이라고 했을 때 전라도, 경상도,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진보, 보수 모두 다 공감해서 아젠다가 되었다. Y.S. D.J가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면서 최루탄 맞으며 눈물 흘리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에 민주화를 이룩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라도, 경상도,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진보, 보수, 남자, 여자 모두가 찢어진 상태다. 미국의 1960년대와 비슷하다. 이 시기 미국 역시 모든 사회계층이 찢어졌다. 그때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나타나서 '뉴 프론티어'의 새로운 지평선을 제시했다. 그 요체는 '달나라 가자'였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이과를 택했고, 결국 미국이 달나라를 정복하는 순간 과학과 기술의 최강국이 되었다. 문과를 선택한 2명은 미국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일원이 되어 세계 각지로 파고 들었다. 이들은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미국 기업의 진출을 돕고 있다. 이것이 문과와 이과의 조합이다. 이런 조화 속에서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고, 이것이 비전의 힘이다. 미국은 '뉴 프론티어'라는 비전으로 오늘의 미국을 이룩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 건국형성, 산업화, 민주화 다음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이 사회가 과학보다는 통찰력과 경험을 중시하게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 주위에 대통령보다는 다소 나이가 많으면서도, 사고가 유연해 남의 비판을 경청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이 나라의 큰 흐름과 희망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공감해서 기술이 중요시되는 사회, 이과를 중요시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 중 누가 되든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큰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만을 연구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 국민들 역시 실망만 거듭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나아갈 방향을 먼저 이해하고, 사회 아젠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은 대통령 3~4명을 거쳐야 될 수도 있고, 1~2명만 거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 차이는 국민이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국민 스스로가 사회적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사회에 진실한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해봤으면 한다. 

제2의 중국, 개성신화 창조를 위하여

윤영상 (주)다산 회장



사진 오경근 원장

다산은 1978년 창립해 지난 30년간 동 및 동함금 기초소재와 신변장 신규류를 생산 판매해온 국내 신동분야의 대표적인 중견기업이다. 현재 사회공단과 반월공단에 연간 3만톤 규모의 동관 및 동함금선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식음용수동관에 대한 미국 FDA 인증을 받아 미주지역 등 6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런 공로로 다산 윤영상 회장은 지난 9월, 제3회 '2007 한국을 빛낸 기업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중국시장 진출에 이어 개성공단 진출로 다산의 제2도약을 준비중이다. 내년 상반기면 그 꿈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한국기업들에게 개성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윤영상 회장을 지난 18일, 노유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산 정약용과의 깊은 인연으로 인해 경영철학에도 다산사상이 깊게 묻어나는 윤 회장. 그에게 경영자로서의 도전정신과 다산정신을 들어 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사진제공: 다산

윤영상 회장

경희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78년 신우특수금속공업사를 설립해 오늘의 다산에 이르고 있으며, 90년 중국 청도다산인조수식유한공사를 설립해 중국에 진출했다. 서울공예공업협동조합, 서울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한국신동공업협동조합의 이사, 중국 산동성 투자기업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진군 명예홍보대사로써 해남 윤씨 중앙중친회 부회장으로 다산사상 전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원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06년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올해의 공예인상', 07년 '한국을 빛낸 기업인 대상' 등을 수상했다.

1990

년,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시장잠재력을 간과하던 시절, 역으로 중국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 중국 청도에 진출한 기업인이 있다. 중국 진출 17년째를 맞으며 중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다산의 윤영상 회장이다.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환경

윤 회장은 중국 청도에 신변장신구를 생산 판매하는 현지법인 '청도다산인조수식유한공사'를 세우고 '중국의 기회'를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현재 다산은 수출 2천5백만불 달성을 앞둔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 투자 결심의 배경에 대해 윤 회장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투자유치정책에서 경쟁력이 있었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투자지역이었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값싼 노동력, 무한한 시장 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저가의 상품 공급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자 일부 한국기업은 중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중국 정부가 자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중국 국민이 경제성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자국민이 더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거죠."

개성은 새로운 기회의 땅

일각에서는 탈중국현상을 전망하면서 BRICs 이후 베트남 등 10여개국을 향후 신흥 경제성장국가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윤 회장은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3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다산은 지난 6월 개성공업지구에 1만700평의 토지를 분양 받고 개성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다산은 이를 통해 3년 후 매출 5천억원의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그는 개성공단의 시장조사를 위해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왔다. 윤 회장에게 개성공단 진출 이유를 묻자 먼저 그는 개성공단의 단점부터 이야기했다.

"개성공단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장스러운 통관절차도 거쳐야 하죠. 인터넷이나 전화도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은 중국에 진출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개성으로 움직였을까? 그는 먼저 '사람'이라는 단어를 되뇌었다.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을 지식노동자로 키워나가면 우리 기업에겐 개성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제3회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 평양 모란피복공장에서
3 평양시내, 주체사상탑육상, 멀리 유경호텔이 보인다.



"개성에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유사한 감정을 느끼고, 성실한 성품을 구비한 좋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경쟁력이죠."

윤 회장은 이런 인력들을 중국의 현지 직원들처럼 단순노동만 시킬 생각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북한의 노동력을 고부가가치 지식노동자와 양질의 관리인력으로 성장시킬 것이란 얘기다. 개성에서 윤 회장이 찾고 있는 기회는 북한동포를 지식노동자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될 새로운 가치를 말하는 것이리라.

중국시장 경험을 통한 새로운 도전

다산은 개성공단에 분양 받은 대지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동파이프, 동선공장 및 EDM(미세동선)공장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18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기존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대규모 이전작업에 착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제 안정적인 사업패턴을 선호할 만도 한데 윤 회장은 여전히 도전을 즐기고 있다. 중국에서의 오랜 경험이 윤 회장에게 스피드와 선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법인의 인건비 상승이나 세금인상과 같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1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해 고부가가치 동가공사업 및



“다산이 개성에서 성공하면 남북한 모두 Win-Win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북한을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의 신용도 상승의 원동력이 되도록 기업인들이 나설 때입니다.”

액세서리사업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저력도 먼저 중국에 진출한 이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기회를 잡아 성공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이 다산의 목표다. 윤 회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언제까지 통일이 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의 진취적인 도전정신이 베어나는 물음이다.

"개성에 투자해서 남북 사이의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잘 되면 북한도 잘 되고, 남한도 잘 되고 서로 Win-Win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보유국가로 낙인찍혀있던 북한은 이제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가신용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죠. 언제까지 그런 굴레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는 북한을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의 신용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도록 우리 기업인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회장에게 개성공단은 제2의 중국이나 다름없었다. 언제나 개척자로 인생을 살아왔던 윤 회장이 중국신화에 이어 개성신화를 창조해나가길 기대해본다.

● 윤영상 회장에게 배움이란...

윤 회장은 중국에서 청도다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화 때문이라고 했다.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으로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의 영속을 위한 사람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성은 알면서도 관리의 노하우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윤 회장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간개발연구원의 문을 두드린 것은 1982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춘계세미나부터라고 한다. 25년을 훌쩍 넘어서는 장수회원인 셈이다.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경영에 관심을 갖고 나름 많은 공부를 했지만 진정한 경영학습이 시작된 것은 연구원에서부터입니다. 매주 조찬세미나를 통해 배운 지식들이 개인의 성장과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을 줬죠. 지금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의는 빼놓지 않고 차로 이동하면서 두 세 번씩 듣고 있어요. 제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최고의 MBA였습니다."

윤 회장은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MBA로 거듭나 자기와 같은 '혜택 받는 CEO'들이 늘어나길 소망한다고 했다.

다산 정약용과 윤영상 회장

사실 인터뷰에 앞서 꽤 오랜 시간 다산 정약용과 윤영상 회장의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 회장은 다산 선생의 실학사상에 감명을 받아 사명을 '다산'으로 정할 만큼 '다산' 전도사로도 유명하다. 그는 사명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어릴 적 다산초당을 놀이터 삼아 성장했어요. 6대조 할아버지가 다산 선생의 18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다산과 함께 실학사상을 확립했던 윤중진입니다. 자연스럽게 종손인 제게 있어 다산은 삶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죠."

그가 생각하는 '깊은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쩌면 중국에서 사업 기반을 닦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다산의 <목민심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한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지난달 5일 전남 강진의 다산초당에서는 가을향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전원음악회가 열렸다. KBS가 전국을 찾아가다니면서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KBS 찾아가는 음악회'가 다산초당 아래에 자리한 윤영상 회장의 자택 앞마당에서 열린 것이다. 이 날 음악회가 열린 굴동마을은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남도답사 1번지'로 소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집터가 다산 정약용이 생전에 직접 정해진 자리라는 점이다. 그러니 벌써 200년이 넘는 가옥이다. 윤 회장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집을 다산초당으로 착각해서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한다면서 웃음 지었다.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강진의 다산유물전시관에서 제3회 다산 정약용 선생 유물특별전이 열렸다. 윤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도 소장하고 있던 많은 유물을 공개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굴동마을에 다산의 유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유물 공개로 인해 학계에서도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굴동마을이 다산학의 산실이라는 점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윤 회장은 강진 명예홍보대사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윤 회장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강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지중해 못지 않은 풍광을 가진 강진만과 평생 500여권의 방대한 학술저서를 남긴 다산사상, 고려청자문화, 근대의 영광 시인의 문학적 가치 등이 조화를 이루면 한국 제일의 문화관광 지역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미 윤 회장은 1987년 조순 전 경제부총리, 김성훈 전 장관, 한승수 전 장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14명이 모여 결성한 다산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산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이를 강진군에 기증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고향 강진에 꿈이 하나 있다. 다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굴동마을에 학자, 문화지식인들이 찾아와 다산 선생의 뜻을 간직하고 다산사상을 연구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 많은 '다산메니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100억원을 투자해 다산박물관을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달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리던 때를 같이해서는 굴동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는 등 남다른 고향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다.

강진홍보대사라는 직함에 걸맞게 고향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윤 회장의 마음은 이미 뿌듯함으로 가득 차 보였다. 



• 강진에서 열린 KBS 찾아가는 음악회



1	3
2	4

- 1 제3회 다산유물특별전 개막식
- 2 전남 강진 다산유물전시관
- 3 유물특별전에 공개된 윤복의 일기 초본
- 4 유물특별전에 공개된 윤취서의 서찰



• 굴동마을에서 열린 1사1촌

茶山艸堂을 다녀와서

이용원 주5일넷(주) 사장



■ (A) 영랑 시인 생가 앞에서
■ (B) 다산 정약용과 다산초당

10월 5일 금요일 오전 7시, 우리 일행은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싣고 '다산초당'이 있는 전남 강진으로 1박2일의 가을여행을 떠났다. 떠나는 날 햇살은 가득하고 청명한 날씨는 우리의 기쁨을 더해 주었다.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생활 중 10여년간 안식처가 되었고 <목민심서>를 집필했던 곳이다.

이번 여행길에는 인간개발연구원 회원이신 윤영상 회장의 전남 강진 고향집 잔디마당에서 KBS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관람하고, 주식회사 다산과 굴동마을간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및 마을 경로 위안잔치 등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향기

이러한 알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버스는 점심때쯤 되어 목포에 도착했다. 바다가 보이는 한식집 '남도밥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일행은 곧바로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 문예역사관과 자연사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오지호 화백의 아들인 오승우 화백의 전시실과 화폐전시실을 더욱 관심있게 보았다.

버스는 강진 소재 영랑(允植) 김윤식 시인의 생가로 향했다. 생가 입구의 가지런한 상사화 꽃밭과 생가를 감싸고 있는 대나무 숲, 그리고 앞마당에 있는 모란꽃 무리는 작년에 보았던 정감 그대로였다. 남도의

풍광과 바람과 자연이 있었기에 영랑 시인이 그렇게 출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슴이 저리도록 영롱한 시어(詩語)들을 우리들 마음 속에 심어준 것은 강진의 푸른 하늘 아래서라면 가능했으리라 생각되었다.

오후 3시경 우리 일행은 작년에 '산사음악회'를 감상했던 백련사 사찰로 이동해 사찰 곳곳을 음미해 보았다. 그리고 오솔길을 따라 800m를 산길로 걸어서 다산초당에 갈 수 있는 안내판을 보았다.

당일 목적지는 다산초당 아래에 있는 윤 회장의 모친이 살고 계신 집으로 이곳에서 KBS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강진만을 내려다보며 서있는 해월루(海月樓)에 잠시 들렀다. 아마 오래되어 없어진 누각을 새로 짓고 있는 모양이다. 강진만 동쪽이 잘 보이는 곳에 거의 다 지어진 누각이 서 있는데, 해설 간판이 없어 마음대로 상상해 보았다. 아마도 백련사 큰스님과 다산 선생이 만나 바다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끝없는 대화를 나누던 장소였을 것이리라.

다시 발걸음을 돌려 울창하지는 않으나 운집한 자생 차나무 숲을 지나 다산초당 가까이 있는 천일각(天一閣)에 도착했다. 4평 남짓한 목조 건물로 정면과 측면이 한 칸씩인 누각이다. 일행은 신발을 벗고 누각 마루에 앉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아름답고 맑은 강진 바



이용원 사진



■ (上) 굴동마을에서 열린 1사1촌식



■ (下) 윤영상 회장이 회원들에게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다를 내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분의 설명이 유난히 귀를 때린다. 이곳은 다산이 두고 온 처자식과 흑산도로 유배간 둘째형 약전(若鎭)을 그리워하며 심회를 달래던 곳으로 올라가

올다가 잠이든 곳이라 하였다. 가슴이 찡해지는 느낌이다. 연이어 바다를 보다가 이야기는 약간 더 커진 소리로 이어진다. '물이 푸르니 나르는 흰 새가 더욱 희어 보이누나' 하면서 분위기를 문학적으로 고조시킨다. 고문진보(古文眞寶)에 나오는 시조인 듯, 그 분의 재치가 상당히 품위있게 보인다.

잠시 후 천일각에서 다산초당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는 다산의 강직함을 말해 주듯 적송(赤松)과 하늘을 찌를 듯한 대나무 숲도 보인다. 다산초당에 가보면 초당이 기와로 지어져 있어 찾는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1958년 다산 유적보존회에서 허물어진 초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기와집을 지었다고 한다.

초당에는 '다산초당(茶山草堂)'과 '보정산방(寶丁山房)'이라는 두 점의 현판 글씨가 방문 입구에 각각 따로 걸려 있는데, 추사 김정희가 쓴 것이라 한다. 현재 원판은 다산 선생의 외척 해남 윤씨의 후손인 윤 회장이 따로 소장하고 있다고 귀띔해준다. 이곳은 다산 4경이라 부르는 정석, 약전, 다조, 연지석가산 등의 유적이 있는데 가정 정원용 크기다. 모두가 선생의 때묻은 정이 물씬 느껴지는 유적으로 지금도 그대로 있다.

초당 바로 아래에 있는 윤 회장의 고향집은 강진 도암면 만덕산 자락의 굴동마을로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마당에는 금잔디가 깔려있고 가운데는 아주 큰 감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군민 수백명이 모여 음악회를 기다리고 있다. 공연장 근처 마을식당에서 서둘러 저녁식사를 마친 일행도 '로열박스'에서 공연을 봐야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오후 6시가 되자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은 모든 이의 고향을 담은 옛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마을입니다'라는 오정연 아나운서의 멘트

로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국악인 김용우가 흥을 돋우고, 마림바 연주가 전경호, 뮤지컬 배우 소냐 등이 군민과 어우러져 선율과 노래 소리로 굴동마을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2시간이 금새 지나가고 별이 총총한 밤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산의 정취를 만끽한 시간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다산과 굴동마을과의 농촌사랑 1사1촌식 자매결연식, 그리고 윤 회장의 모친 미수(米壽)를 겸한 경로위안잔치가 열렸다. 기관장과 직능단체장, 주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축사와 인사말이 이어졌고, 농촌사랑 실천계획에 쌍방 대표들이 서명을 했다. 28가구 74명이 사는 굴동마을의 발전이 보장되는 순간이었다.

연이어 어제 방송국에서 설치해 놓은 무대 위에 잘생긴 사회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2~3시간 잔치판이 벌어졌다. 노래자랑, 장기자랑, 춤자랑이 이어지는데, 오랜만에 보는 고향마을의 우리민족 고유잔치가 틀림없었다.

오늘의 호스트인 윤 회장은 말이 별로 없다. 영생의 그 무엇을 그리워 하듯 명상에 잠겨 있는 듯하다. 사회자가 윤 회장을 찾아 내빈께 인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어머니를 단상에 모시고 지난날을 잠시 회상하는 듯 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6남매의 장자인 윤 회장은 '어머님 은혜는 하늘아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준비한 인사를 마치지 못한다. 며느리는 밀레의 그림 속 여인처럼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옆에 서있다. 울먹이는 아들을 감싸고 고맙다고 속삭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이의 가슴을 찡하게 한다. 우리 모두의 미수잔치였고 뜨거운 감동이었다. 아마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만수무강 하셔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기도하였을 것이다.

일정대로 출발할 시간이 되어 버스에 몸을 실은 일행은 모두가 큰 이벤트의 주인공이 된 듯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책에서 볼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생 암묵지 이야기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일행들로부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소중하게 들었다. 소중한 이야기들을 듣고 적어 수첩 두 권이 모두 소모되었다. 유익한 말씀 잘 정리하여 다른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들려줄까 한다. 여럿이 가는 여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 **김현미**



제553회 장성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2주년 기념강연 9월 21일(금)

정부혁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



■ 장성아카데미가 9월로 12주년을 맞았다.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지난 9월로 12주년을 맞았습니다. 한편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한 장성아카데미는 전국 80여개 자치단체에 새로운 아카데미가 개강하는데도 산파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의 전통을 이어갈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9월 21일 "정부혁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제553회, 12주년 기념강연을 해주시는 최양식 차관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1.or.kr

정부혁신은 지금 정부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개혁이라고 했죠.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개혁이라든지 정당을 개혁한다든지 교육제도를 개혁한다든지 통금을 없애거나 부활한다든지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혁신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하자면 제도를

바꾸는 공무원들을 바꾸는 거죠. 여기 장성군, 장성아카데미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성군은 이미 12년 전에 정부혁신을 시작한 혁신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 먼저 만드는 것이 혁신

정부혁신은 사람을 바꾸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혁신이 일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혁신과 업무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서 풍성한 식탁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물에 들어가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에 바로 뛰어들지 않고 물가에 앉아서 물고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연구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듭니다. 그물을 만들고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 사람과 분업을 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온 가족, 이웃이 함께 풍성한 식탁을 꾸밀 수 있어요. 혁신은 이와 같이 물가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그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그물만 만들고 있을 것인가? 아마 시장에서 굶어 죽겠죠. 그래서 그물을 만드는 시간과 물고기 생태를 연구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줄이는 것,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주식회사 장성'처럼 많은 것을 연구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토론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혁신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을 만들고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에 대해 생산성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연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업무와 만나는 겁니다. 혁신과 업무의 갭을 '전략적 갭'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갭을 가지고 그물을 만들거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나중에 일을 다시 추진하면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고통과 아픔, 기쁨을 함께 할 때 국가 영속

오늘 이 자리에는 장성의 선비들께서도 오셨지만 경주 최씨 가문에서 내려오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경주 최씨는 9대 진사, 12대 만석을 했습니다. 그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경주 최씨들은 특별한 가훈과 내훈을 전달해왔습니다. 첫째, 머느리가 시집오면 3년간은 무명옷과 삼베옷만 입힙니다. 부잣집에 왔으니 비단옷을 입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둘째, 사방 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굶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경주 최씨 가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벼슬을 한다면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 하면 결국 당파싸움에 휘말려 온 가문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넷째,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융숭하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다섯째, 흥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흥년에 전답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흥년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경주 최씨는 300년의 부를 지켜왔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중국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15년을 존속하고 망했습니다. 수나라는 38년 존속했고, 대제국 당나라는 290년을 존속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705년, 신라는 980년입니다. 백제는 678년, 고려는 474년, 조선은 518년을 존속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중국 만리장성을 자세히 보면 모두 그 국민들의 고통과 3대에 걸친 희생 후에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왕들은 흥년이면 1식3찬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했고, 가물면 누룩으로 술을 빚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가뭄해소를 위해 산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며 3일간 금식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백성들과 항상 고통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500년 이상 나라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효율적 정부 투명한 정부 분권화된 정부 함께하는 정부

혁신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에는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느냐, 그리고 빨리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부죠. 우리는 지금 세금납부의 90% 이상이 전자납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시스템에 '키스(KISS)시스템'이란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입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SPI 1357'이라는 중기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퇴직 후 식당을 운영해보겠다는 사람이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주민숫자, 유동인구, 사무실 숫자가 나오고,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양식당, 한식당, 중식당의 현황을 볼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인구 유입이나 아파트 건설 전망도 알려줍니다. 식당뿐 아니라 각 직종별로 모두 나와요.

과거에는 조달청 입찰 부조리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조달청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고 담합한 떡값 줄 필요도 없이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리 감동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테스트 베드'라고 합니다. 모토로라나 노키아에서 핸드폰을 만들면 한국 시장에 먼저 제품을 선보이고 의견을 들어본 뒤 세계시장에 출시합니다.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 세계시장에서 성공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이게 제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책에도 반영됩니다. 정부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국민들은 그런 건 각종 포털에서 서비스 받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칭찬 받고 자랑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업무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국민은 절대적인 왕이거든요. 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병무청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병무청 슬로건이 '친구야 군대 같이 가자'입니다. 친구와 같이 가면 훈련소에서 자대까지 배치를 같이 받아요. 부대 배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 그쪽으로 배치해 줍니다.

군 입대를 면제받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몸무게 110kg을 넘는 겁니다. 그런데 109kg은 군에 입대해요. 육군훈련소 건강소대에 집어넣고 체력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나면 6~10kg까지 빠집니다. 자대에 가서도 대대장이 확실하게 챙기고, 5kg 줄 때마다 포상휴가를 줘요. 결국 제대할 때는 75kg 미만으로 감량됩니다. 그런데 110kg 넘는 아이들과 부모가 자기들도 군대 가겠다고 항의를 해서 병무청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 중입니다. 병무청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스템들이 구축됐습니다. 집에서 PC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떼고, 병적증명, 납



최양식 차관

1952년 생으로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버풀대 행정학 석사, 영국 엑스터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2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총무처 국외훈련과장, 인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駐 영국대사관 참사관,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 행정자치부 의정관·인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정부혁신본부장 등을 거쳐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올랐다. 국민대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세증명을 땔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정부기관끼리 42종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연결시켰어요. 예전에 여권 신청하려면 7종의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사진 한 장 가져가거나 그냥 가도 돼요. 현장에서 신청서 쓰면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모두 처리됩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면서 모든 국민이 덕을 보는 겁니다.

둘째는 투명한 정부입니다. 투명한 정부는 참여정부가 가장 실적을 못 올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달청의 전자입찰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다만 정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정보공개포탈에 모두 올라옵니다. 어떤 것은 바로 현장공개가 되고 어떤 것은 신청하면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들 잘 모르고 있어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셋째는 분권화된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분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전한다든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서 세원 재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아직 20%가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세원 재배분이라든지 여러 노력을 통해서 재정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정부입니다. 참여마당 신문고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돼있고, 그곳에서 정책토론도 이루어집니다. 또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매뉴얼이 아닌 지혜를 통한 창조적 성과 준비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혁신브랜드'라고 해서 국제사회에 선보여서 조달청의 전자구매시스템은 UN에서 상을 받았고, 행자부의 혁신 지수도 상을 받았을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혁신한다더니 국민들이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먹을 걸 빨리 내놔야지 계속 그물만 만 들고 있으면 무엇 하느냐?" 우리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요. "국민들께 빨리 뭘 좀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아직 내놓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직은 그물을 더 만들어야 돼. 만약 급해서 뛰쳐나가면 나중에 우리가 해온 노력들이 전부 허사로 돌아가니 참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부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성공한 것은 왜 성공했는지 분석했어요. 그리고 정책품질관리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100가지 체크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매뉴얼을 없애라" 하시는 겁니다. 만들라고 하시더니 왜 다시 없애라고 하실까 했는데, 매뉴얼이 없어져야 창조적인 것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분석하는 것은 좋는데 그것만 따라가면 1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몸 속으로 녹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공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내공을 통해 창조적인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정책 실패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패 안 한 정책이 반드시 성공한 정책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 가능성은

줄었지만 보다 질 높은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국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매뉴얼을 파괴하는 일에 들어갈 겁니다. 매뉴얼을 파괴할 만한 내공이 갖추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걸 파괴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혁신에도 네 가지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남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인(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발라야겠다는 겁니다. 장성아카데미가 553회를 이어오는 것도 최고의 지식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이 옳은 의(義)입니다. 셋째는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언제든지 지식을 구하는 것을 예(禮)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기 속에서 녹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智)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중심의 조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


앞으로의 정부혁신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물 만드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내년 이후에 들어서면 정부는 창조를 들고나올 겁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창조하는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모든 시스템이나 제도는 서양의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갈등과 대립의 산물이지요.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새로운 변증법적인 사회발전 논리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당을 보세요. A정당과 B정당이 서로 싸워서 이기는 쪽에 정권을 주는 것도 그렇고, 노조와 사용자 대립을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노사간 대립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삼권분립을 통해 대립과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도 소비자와 공급자로 나눠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서양의 갈등과 긴장과 대립을 통한 사회발전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은 다른 논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현재와 같은 성과와 경쟁 중심의 관리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열정이 넘치면서도 인간이 있는, 사람은 없고 일만 있는 조직이 아닌 사람이 있는 조직, 그런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의 세계일 겁니다. 혁신은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즐거운 가운데 창조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혁신은 보다 즐겁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고객중심으로 가야합니다. 그럼 국민이 고객이나? 국민은 고객이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고객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고객을 대접하는 정신을 정부가 이어 받아서 국민들을 고객으로 예우하겠다는 겁니다.

흔히 '나 아닌 모든 사람이 고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이라는 고객을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어떠한 고객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랑의 출발점은 자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떤 정책도 고객을 통하지 않고는 국민에게 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고객에게 전해져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나라사랑이 정책에 바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학의 대가 엘빈 토플러는 그의 명저 <제3의 물결>에서 20세기 교육에 숨겨진 목적 3가지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만든다. 둘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든다. 셋째, 반복노동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만든다.

20세기 공업사회에 서는 컨베이어벨트에 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 노동자들이 탁월한 인재로 평가됐다. 그러나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지나 탈공업사회 즉,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전혀 적응능력이 없는 마이너스형의 퇴물 인재들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가 일으킨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내심 강하고 참용성 있는 인간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 명령에 순종만 하는 인간보다는 스스로 과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창조적인 인간, 기계처럼 반복노동만 하는 인간보다는 도전적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21세기 인간자본의 정신이다.

이와 같이 21세기는 노동의 역할도 인재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존재방식도 노동자의 노동 내용도 완전히 변했다. 20세기의 노동은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일하는 집단성의 특징에 따라 균일노동, 정확성, 근면성이 돋보였다.

이에 비해 21세기는 장소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해졌다. 시간대로 일하는 것보다는 창의성이 요구되고, 균일노동에서 요구되는 균등한 생산성보다는 차별적인 생산성 즉, 개인차가 인정되며, 시간관리도 물리적인 것 넘어서서 창의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공장노동이 요구하는 정확성보다는 개성에 맞는 대인 서비스 노동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동화시스템이 제공하는 기계적인 서비스 대신에 서비스를 받는 개개인의 개성에 적합한 맞춤형 즉, 임기응변적 서비스 능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서비스와 대범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간적인 마음가짐 즉,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시대변화는 21세기를 서비스산업시대로 부르게 만들었다. 서비스산업이 요구하는 노동은 기계적이고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감성과 혼이 담긴 감성노동과 섬김의 노동이다.


21세기는 국경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격화되고 있는 경쟁 속에서도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 친절하고 다정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자본주의와 서비스산업시대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10월 23일 열린 '글로벌HR포럼' 개막식에서 존스홉킨스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를 비롯한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격이 된 한국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인적자원개발뿐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렇다. 우리 한국은 20세기 산업시대에 피땀 흘려 일해서 2만불시대를 넘어 3만불시대로 나아가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룩했다. 그러나 20세기 산업화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벤처 마인드'를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간 섬김의 서비스산업을 개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취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청년 10명 중 4명이 '백수'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을 졸업하고도 청년실업자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기만 하다. 우리 한국경제가 무엇이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인이나 학교, 사회, 나라 전체가 20세기 산업사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 즉, 인간자원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1세기는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질경제 시대에서 인간경제 시대로 변하면서 물질의 가치보다는 감성과 마음가짐이 중요한 감성경제, 영혼의 경제시대가 온 것이다. 참다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주도해 나갈 경제성장 즉, 서비스산업경제가 발전돼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장래는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간자본의 정신에 달려있다. 본질적인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경제가 서비스산업화 돼야 인간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善)순환 리더십

유영대 남서울대 교양학부 교수

BUSINESS

바람직한 리더는 팔로워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신뢰와 존경을 갖게 함과 동시에 본래의 예정된 성과 이상의 결과를 얻도록 하여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팔로워들이 과업 수행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유히게 하고, 본래 팔로워가 지녔던 욕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차원적인 욕구의 충족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상했던 기대보다도 훨씬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개인주의 팽배는 기존의 리더 중심이었던 조직 패러다임에서 리더와 팔로워의 상호성에 중심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운영 및 경영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조직간 상호성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惡循環 - 善循環

우리 국어사전에 악순환(惡循環, Vicious-Cycle)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된 내용을 보면 '밀접한 상호 관계에 있는 것들이 서로 관련하여 나쁜 영향을 주고받아 무제한으로 악화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녀간, 직장에서 상·하급자간, 그리고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문제, 사고 등의 한 가지 부정적 요소가 고리가 되어 연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순환(善循環, Good-Cycle)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간관계나 조직관리 면에서 개인 스스로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이 상호간 긍정적 동기부여로 연쇄적으로 상승효과가 반복되도록 하여, 개인이나 조직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선(善)순환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도록 한다는 이론이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선(善)순환이 시작되고 반복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인간의 삶이나 조직관리는 인간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한

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학자도 사람들의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려있고, 15%만이 지적, 기술적인 능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성공에 85%의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인맥이 형성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으로서 얼마만큼 호감이 가느냐? 또는 안 가느냐? 하는 개인의 브랜드가치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발전과 성공에 '징검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걸림돌이나 징검돌 역할이나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다. 즉, 선(善)순환의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것이다.

긍정의 에너지로 퍼지게 해야

둘째, 카오스이론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조건에서 민감한 의존성, 곧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시대에서 나비효과는 더욱 강한 힘을 갖는다. 디지털과 데스크톱 혁명으로 정보의 흐름이 매우 빨라지면서 지구촌 한 구석의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은 '파장' 또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긍정의 선(善)순환 에너지가 되어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오긴 했지만 특히 최근 들어 많은 CEO들이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의 역할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인재',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마쓰시다 전기를 설립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도 다음의 말에서 경영자로서 남다른 식견을 일찍 깨달았던 사람이다.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 라고 물어오면,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듭니다 라고 대답하라."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좋은 품질을 만들려면 좋은 사람을 먼저 만들어



야 하며, 품질을 높이려면 사람의 질을 높여야하고 품질의 혁신을 이루려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영철학을 가진 경영자였다. 이렇듯 사업발전의 근간을 인간 즉, 인재에 두는 인간 중심의 철학은 경영자의 최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장기적 생존이 기업이 보유하는 내부자원에 의해 규정되는 이른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또한 GE의 전 회장인 잭 웰치는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 "경영자는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다른 한 손에는 비료를 들고 꽃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리더와 팔로워간의 상호성에 의해 효율성 증대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바로 선(善)순환의 시작이 리더의 몫임을 강조한 의미로 느껴진다.

조직의 능력을 결집·통합하는 리더 돼야

셋째, 전문가라면 모든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자가 기기를 설계하는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쓰는 경우에도, 변호사나 건축가가 남의 의논상대가 되는 경우에도 모두 그러하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 동료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또 스스로의 체험을 통한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가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험에서 얻은 경험과 주변의 합당한 사회과학지식을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영자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는 전 직원의 노력을 기업의 경제적 목표 달성에 통합하고 집결시키는 일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성취된 성과들은 인간의 행동을 잘 예측하고 통제하는 능력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조직관리 및 인간관계가 기업 운명에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동의할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리더십이란 주제는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 왔는데, 유연성과 합리성이 추구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요구되는 21세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긍정의 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며, 모든 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이고 또한 성공적 조직관리에서 리더의 몫을 실감하게 한다.

선(善)순환 리더십으로 사회 아올려야

디지털 사회의 도래로 우리사회에서 정보접근 능력과 정보이용 능력의 차이가 세대간 정보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세대차이'라 불리던 것이 현재는 '세대충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직업관, 결혼관, 인생관에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기업에서도 노사간에 임금과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현상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곳곳의 일반여론도 배타적 논리와 넘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이 마치 수학문제의 정답인양 풀어내기 바쁘다. 10인 10색으로 갈라지고 다원화된 가치관이 공존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오늘날 이 사회를 아우르고 보듬어 나갈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선(善)순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KKPM**



유명대 교수

1951년 생으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수원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육군대학 및 국방대학원을 졸업했다. 72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에서 20년, 공군에서 13년 등 33년간 군복무 후 04년 공군소장으로 전역했다. 공군 1, 2, 3방공포병 여단장 및 방공포병사령관을 역임했다. 현재 남서울대 교양학부 교수와 수원대 일반대학원 정책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선(善)순환리더십 연구소장으로 '선순환 리더십'의 저자 및 강사로 활동 중이다.



회원 소식

- **기업은행 강권석 은행장**은 지난 10월 1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하는 2007년 한국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고객만족경영대상 부문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였다.
- **한무개발(대표이사 김동헌)**은 지난달 한국신용평가정보로부터 신용등급이 BBB(안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되었다. 한무개발은 GS그룹 소속 특급호텔로 강남 삼성동 무역센터 부지 내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 **심갑보 삼익THK(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0월 2일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제5기 최고위관리자과정에 초청되어 "CEO의 역할과 임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은 오는 11월 12일 오후6시 30분부터 안국 교육장에서 제49차 LMI수료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장송모 선생이 "왕실도자기와 전통도자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 **윤영상 (주)다산 회장**은 지난 10월 5일~6일, 본원 회원들을 전남 강진으로 초대하여 다산초당을 둘러보는 등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날 윤영상 회장의 자택 잔디밭에서는 KBS 1TV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 **김규복 신용보증기금(코딧) 이사장**은 지난 10월 11일~12일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코딧 연수원에서 임원, 영업본부장, 본부 부서장 및 전국 영업점장 등 16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4차 '혁신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지난 10월 1일 제46회 충남 청양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2007년 군정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 **양종관 (주)지유아이종합상사 회장 / 남서울대 교수**는 지난 10월 20일 결혼 상담과 웨딩 주얼리를 함께 컨설팅하는 전문점을 오픈하였다. 영국에 이어 한국에 새롭게 오픈하는 Wedding&Fine Jewelry 브랜드인 EL.loie 란 상호로 오픈 행사를 가졌다.
 - 주소 : 서울 은평구 갈현동 401-2 종혜빌딩 2층
 - 전화 : 02-388-9783 · 팩스 : 02-388-6353
 - 홈페이지 : www.elloize.com

- **김정철 (주)정림건축 명예회장**은 지난 10월 2일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에서 열린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공부문 본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상은 춘천 대릉중학교 설계에 대한 것으로 대릉중 교사들은 녹음과 공기, 햇빛이 들어오게 설계되고 단아하고 건강한 비례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장영주 서양화가**는 치열한 현대미술의 접전장인 뉴욕에서 지난 10월 4일 ~10일까지 3번째 전시회를 가졌다.
-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은 지난 10월 16일,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열고 10년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였다. 한편 3곳으로 분산돼 있던 사무실을 서초동 신축 사옥으로 이전하였다.
 - 전화 : 02-6000-7000 · 팩스 : 02-6000-7020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7-4 금성빌딩
- **정경연 정경연한의원 원장**은 11월부터 캠퍼스21(www.campus21.co.kr)에서 "비즈니스맨 건강도 전략이다"를 주제로 e-러닝 강좌를 개설한다. 이 과정은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스스로 진단해보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려주게 된다.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김석희 회원(삼이실업 회장)**의 차녀 헤지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일시 : 2007년 11월 5일(월) 오후6시
 - 장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신성월드	권오범 사장	11월1일
(주)비엘토토	김광택 대표이사/회장	11월1일
(주)세원	김병춘 회장	11월2일
(주)비츠로그룹	장순상 회장	11월8일
(주)덕성	이해성 사장	11월10일
(주)코리아나화장품	유상욱 회장	11월15일
(주)주택문화사	이 심 회장	11월18일
에스엔케이폴리텍(주)	송재문 회장	11월19일
로터스힐	최만식 회장	11월26일
서울도시가스	배경운 회장	11월28일

신규회원



김석희 삼이실업(주) 회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4 삼이B/D
- 전 화 : 02-515-6725 · 팩 스 : 02-516-8084
- 업 종 : 종합무역, 유통



이충희 (주)듀오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2-5 백운빌딩 3층
- 전 화 : 02-3018-2352 · 팩 스 : 02-3018-2351
- 업 종 : 무역, 유통



이재규 (주)듀오 이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2-5 백운빌딩 3층
- 전 화 : 02-3018-2352 · 팩 스 : 02-3018-2351
- 업 종 : 무역, 유통

연구원 소식

• 기업교육 제안 및 감사추천

본원에서는 32년간의 교육 노하우로 기업 및 단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맞춤 제공해드리는 기업교육 제안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국내의 우수한 강사진들과 함께하며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전문 영역의 강사진을 네트워크화 하여 기업이나 단체의 성장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기업교육상담 장소영 차장(02-2203-3500 내선107)

• 개성공단 투자시찰단이 마감

본원이 후원하고 국내 정상의 섬유패션 전문지인 국제섬유신문사가 주최해 11월 13일 출발 예정인 개성공단 투자시찰단이 조기에 성원이 되어 마감되었습니다. 이쉽게 모시지 못한 회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 LG실트론 과장급 대상 리더십 교육 실시

리더십 전문 교육회사인 한국엘엠아이(회장 장만기)에서는 LG실트론 과장급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과정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4개 팀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지자체 소식

• 진도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구축 준비 '착착' 진행

진도군이 지역 출신 향우와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구축 준비를 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11일 CRM 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한 지역 협의체인 '진도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군은 농협 진도군지부가 컨소시엄 형태로 국비와 군비 등을 지원 받아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CRM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전국 최초 말하는 서구 신문 제작

부산 서구청은 매일 발간하는 서구 소식지 내용을 '말하는 서구신문'으로 제작해 10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서구는 그동안 구정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 유용한 지역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었으나 시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시력 장애우 등에게는 정보전달의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에듀보드'라는 멀티미디어 제작도구를 이용해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천 문화시민운동,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



부천시는 기본이 바로선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시 전 지역에서 문화시민 일제정비의 날 행사를 갖고, '문화시민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시민, 단체, 공무원 등 3천여명이 참여해 주요 도로변의 노상적치물 제거는 물론 노점상,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인도 보행권을 되찾는데 중점을 뒀다.

• 대전 중구,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대전 중구청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화거리 상인에게 신경영기법 전수와 함께 '변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식혁신의 필요성 등 영업전반에 걸쳐 찾아가서 상담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시작한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이 달 5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특화거리를 전문상권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나를 움직이는 힘, 퍼스널 리더십

- 내 안에서 끌어낸다

리더십 교육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목표를 조사해 보면 의외의 결과를 볼 수 있다. "내가 목표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90% 이상이나 된다. 목표가 중요한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목표를 가진 사람은 10%가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전과 목표설정 능력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감안할 때,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개발에 더욱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한다.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리더의 탁월한 리더십이 절실히 지고 있다. 성공하는 기업에는 조직 각 분야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지식이나 머리에 의해야 하는 내면적 자질이다. 때문에 리더십은 탁월한 리더가 함께하는 조직의 문화와 토양에서 장시간에 걸쳐 배양된다.

사람의 변화나 리더십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 아닌 완전하고 통합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리더십에 대한 관심 증가와 비례해서 리더십 주제가 너무나 세분화되고, 단편적인 어느 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리더십에 현란한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의 행동이 바뀌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와 가치관을 명료하게 확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복잡다단한 삶과 일의 틈바구니에서 순간순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변함없이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가치관을 확립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은 그런 시간을 내기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그래서 일과성 이벤트를 즐긴다. 결과적으로 리더십 교육과정에서 그에 관한 지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단편적으로 주입되어, 체계적으로 실제 삶과 업무에 적용되지 못하고 이상 따로 현실 따로 말과 행동 따로인 것이 아쉬울 뿐이다.

이제 지식경영을 넘어 윤리경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조직의 리더들은 구성원들을 기업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구성원들은 기업의 가치관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한다. 기업의

경영기조가 권위주의에 빠져 있거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줘도 과감하게 떠난다. 최고경영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왜곡된 커뮤니케이션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모든 조직의 경영진들이 가진 가치관의 명료화 작업은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가 아닐까 여겨진다. 혁신을 원하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의 체계적이고 검증된 시스템에 의한 리더십개발은 투자에 대한 가장 큰 보상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한국엘엠아이**

한국엘엠아이

검증된 LMI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창조와 혁신, 성공하는 조직과 리더의 생존전략입니다. 일과성 세미나로는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검증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LMI 목표설정 과정들은 지난 40여년간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수없이 많은 개인과 조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성과가 놀랍게 향상되도록 도와 온 프로그램입니다.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EPL 78기 개강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오후 7시

교육시간 : 주 1회 2시간 30분, 16회합 (총 40시간)

장 소 : LMI 본사교육장 (3호선 대청역 7번 출구)

참가대상 : 기업의 임원, 핵심인재, 전문직업인 등 리더십에 관심을 지니고 계신분

참가인원 : 선착순 12명

교육비 : 220만원(교재, 석식 제공)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 02-2202-8700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5층



얼마 전 군부대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자신이 느낀
침향의 놀라운 깊이를 지휘관께도 꼭 경험하게
해 달라고 수 차례 부탁해온 관계로 부대를 방
문하여 침향과 차문화를 함께 한 일이 있었다. 처음 뵈었을 때도 아주 건
강한 모습이었지만 한달 여가 지난 지금 더욱 강건해진 모습을 볼 수 있
다. 지도자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 부대의 지휘관
과 나는 이야기와 건강을 중심으로 침향 이야기를 할까한다.

우리 곁에 다가온 沈香은 어떤 의미인가? _세번째 이야기

碗天 김영호 선생

노화와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끊임없이 영양소를 공급받고, 얼
마나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느냐에 따라 건강과 장수가 결정된다.
많은 건강법이 있지만 내 몸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잘 내어 보내는 것이
우선이며 중요하다는 것에 이의는 없다.

몸에 좋은 보약, 진귀한 음식일지라도 몸 속의 노폐물을 남기고는 생각
을 좀 해봐야할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의서(古醫書)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도 결국은 독(毒)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노폐물을 몸밖으로 내보
내지 않고는 결국 모든 보약과 진귀한 음식도 독으로 변하는 노폐물이 된
을 적확(的確)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노폐물과 이것으로 야기되는 모든 것들을 몸밖으로 남김없이 내 보내는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여타의 음식이나 약재
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인 셈이다.

유전자가 변이되어 나오는 식재료들, 원산지가 어디며, 무엇을 첨가했는
지조차 모르는 각종 음식들로 인해 우리 몸이 받게 될 건강 위협, 더 나아
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 간절할 수 있다.

과연 침향은 이러한 것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침향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물에서 느끼는 냄새에 국한되지 않고 냄새
와 더불어 氣가 발산되는데, 이때 활성화 된 氣는 노폐물 등 막혀 있는 곳
을 뚫어 주는 능력이 있다. 일단 몸 안으로 들어간 침향은 그때부터 몸을
돌다가 막힌 곳을 찾으면 배설물과 함께 나올 때까지 가림이나 걸림없이
뚫고 다닌다.

이러한 침향을 몸에 지니고, 향을 맡으며, 체질과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복용하다 보면 어느새 젊은 청년의 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각자의 나이만큼 자리잡고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어 보내고 있기 때
문이며, 내 몸에 안착하고 있는 노폐물은 결국 독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체외 배출에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된다.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와 더불어 몸의 순환력이나 정력(신장의 노폐물을 체외로 보내면서 혈
액순환이 빨라지고 신장기운을 담혀 주어서 생기는 것이므로 체력이 아
님이 증강되며, 피부가 깨끗하고 맑아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것
은 몸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모두 내어 보내는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
로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일 따름이지, 침향 자체가 주도하여 몸의 원기를
도와주거나 정력제처럼 먹을 때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沈香을 손질하고 있는 김영호 선생

하지만 꼭 침향이 있어
야 살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먹을거리와 맑은
물, 적당한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 충분한 휴식
만으로도 우리는 주어진
수명을 건강하게 누릴 수
가 있다.

그러나 이런 건강법이
있는데도 굳이 침향을 찾
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
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
확히 젊은 나이로 돌아가
고 싶은 사람의 끊임없는
욕망이 첫 번째 이유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깊이있게 경험해보다면 침향의 또 다른 오묘한
매력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천년이 넘게 인류의 극상층 계급에서는 향문화를 즐겼고, 가까운 일본에
서는 향이 피어오를 때 자신의 손으로 한 올의 향기조차도 새어 나가지 않
게 손으로 감싸서 향을 맡는다. 오묘한 매력과 그 귀함의 깊이에 빠져들수
록, 그 진가를 알아 갈수록 그 모습은 사뭇 진지함을 벗어나 경이로운 감
동을 느끼게 한다. '천상의 진공묘유한 향기(天上의 眞空妙有한 香氣)'라고
하면, 다소 아쉽지만 그런대로 비유가 될 것도 같다.

이러한 침향의 역할과 깊이를 알고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향유한다는 것
은, 상대에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바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귀한 보물
인 생기(生氣)의 덩어리, 침향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극진한
충성심의 표현이자 가능하기 힘든 최고의 예우인 것이다. **碗天**

김영호 선생

사단법인 한국 어울문화원에서 보이차와 다도구를 강의하며, 84년 이후 차와 침향에 관한
유물을 수집 연구하고 있다. 2006년 7월 14일~30일, Gallery LUV에서 清代茶陶名品
展, 2007년 5월 25일~6월 03일, 가나아트센터 공예관에서 沈香茶展을 개최했다.
2003년 이후 문화원에서 차와 침향 강좌를 하고 있으며, 은행 W/M, 와인스쿨에서 보이
차와 침향에 관한 특별강좌를 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를 비롯한 각 포털사이트에서 보이
차와 침향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공하는 기업의 합법적 노무관리 전략

근로기준법의 정확한 이해

구건서 노무법인B&K 대표



최 근 노동부가 각 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나간다는 통지를 보낸 탓인지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인사부서장으로 부터 노동부 점검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합법적인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지, 근로자들의 진정이나 고소는 없었는지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해서 점검에서 시정조치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련 서류를 항시 비치하고 정리해 두어야

중소기업에서는 서류를 대충 정리하는 습관이 있으나 이는 나중에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서류를 갖추어두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임금관련 소송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자칫 패소할 위험도 크다. 따라서 노무관리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반드시 법에 규정된 대로 작성해서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명부, 퇴직금지급 관련서류, 성희롱예방 관련서류, 노사협의회 관련서류이다. 또한 퇴직·해고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합의 서류, 연소자증명에 관한 서류 등도 일상적인 노무관리에서 반드시 비치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채용할 때 근로조건 결정

기업에서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자유지만 일정한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 모집하거나 남녀의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차별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요한 근로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체결하거나 아니면 이를 별도의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근로계약기간은 보통 정년까지로 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물론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다시 개정해서 법 기준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특히 연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봉액에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들은 연봉과 별도로 퇴직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임금, 퇴직금 관련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해서 이를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 시급 기준 3,480원이며, 2008년에는 3,770원으로 인상된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정해진 날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임금 은 본인 에게 직접 주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임금은 발생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만약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의 무가 없다. 1년에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연금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퇴직금은 의원면직, 징계해고 등 퇴직의 사유를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나의 사업 내에서는 지급율에 차등을 둘 수 없다.

근로시간, 휴일·휴가 관련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1주일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된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연소자는 1일 7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도 1일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매월 만근하는 경우 1일씩의 휴가를 부여하되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연차휴가 미사

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생리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임신부가 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90일분 중 60일분의 통상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성희롱예방교육 매년 실시해야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서류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것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방교육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희롱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3~10인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공동으로 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협의회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해야 한다.

노사협의회규정과 고충처리대장, 회의록 등은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복지기금의 설치 등이다. 협의사항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5개 사항이며 보고사항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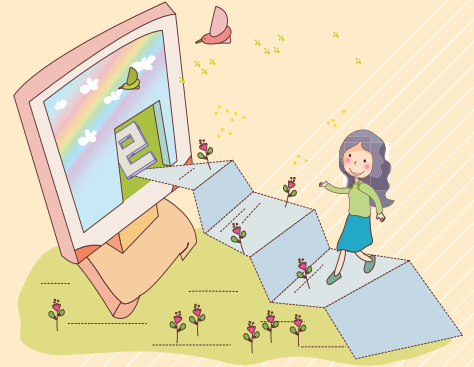


구건서 대표

노사관계·HR전문가로 활동중인 구건서 대표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89년 독학으로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노무법인 B&K 대표공인노무사, B&K휴먼캐피탈 대표,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노사혁신프로젝트, CEO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기준법 등 14권의 전문서적을 집필했으며, 노사관계 경쟁력을 위한 자문과 컨설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웃음과 성공의 상관관계

이임선 서울대병원 웃음치료 간호사



성공하려면 웃어야 한다. 웃음이 성공을 부른다. 웃음은 성공한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항목이다. 지금부터 웃음치료사와 함께 건강을 지키고, 성공을 부르는 웃음으로 들어가 보자.

성공을 부르는 웃음을 멋지게 웃어라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면 평생 찡그린 얼굴로 살게 된다. 실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쪽에 서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웃음 역시 지금 웃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웃지 못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공을 부르기 위해서 '성공을 부르는 웃음을 멋지게 웃어야 한다.

어느 누가 찡그린 얼굴을 보고 싶어 하겠는가? 직원을 뽑을 때도 먼저 서류전형에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증명사진이다. 그것도 활짝 웃는 얼굴의 사진이 더욱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실제로 대면을 하고 보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데, 웃음 띤 얼굴을 한 사람이 자신감과 설득력이 있다. 똑같은 조건에, 비슷한 실력이라면, 당연히 웃음 띤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머감각도 풍부하다. 나이 오십이 넘고, 돈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바로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일과 인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유머, 그리고 쉽게 감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성공하고 싶다면, 웃음보를 자극하고, 마음의 거울인 얼굴표정부터 바꾸어 보자. 그동안 우리는 몸매관리에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왔지, 마음관리는 참으로 게으르지 않았나 싶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웃어야 한다. 실제로 웃는 사람이 성공하고 있다. 성공을 부르는 멋진 웃음을 웃어라. 성공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인생의 가치도 웃음을 간직한 사람만이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웃음으로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이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감각이 싱싱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 꿈틀거림이 바로 웃음이기도 하고, 존재의 의미이며, 열

정이기도 하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꿈틀거리다. 진정한 자신감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의식이 자라고, 알맞은 크기의 열매를 맺는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웃음을 간직하고 있다. 같은 의미로 웃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과 여유를 가진다. 웃음은 자신감을 만들어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특효약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 또한 자신감이기도 하다. 자신감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바로 웃음이 내 삶에 접목되었을 때 삶을 이해하는 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웃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행동은 곧 선택이다. 행동이 마음을 만들어 주는데, 웃는 행위가 곧 행복한 마음을 만든다. 웃음이란 행복함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만이 웃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웃음도 행복도 성공도 모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항목이며, 또 습관처럼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웃음근육의 탄력이 약해질수록 마음에 자리 잡은 행복감도 작아진다. 적어도 하루 3번 이상 크게 웃어주고, 감사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그리고 작지만 살아 숨쉬는 자연을 보고 쉽게 감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웃음일기를 작성해 보라. 너무도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웃음은 바로 감사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행하는 일이다. 성공하려면 웃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웃음은 열정을 만든다. 열정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불타는 열의와 관심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기 마련이다.

웃음꽃은 희망의 꽃이다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간호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요일 웃음치료교실은 비역압적이고, 비종교적이며, 또한 비사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죽도록 살고 싶은 암환자들의 웃음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웃음꽃이 만발하다. 꽃을 피워야만 사랑을 받는 장미꽃도 아니요, 또 언제 꺾일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안개꽃이 아닌 우리의 웃음꽃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의 꽃'이다. 웃음의 꽃은 희망의 꽃

이며, 또한 앓을 이기는 성공의 꽃이다.

얼마 전 웃음치료를 참석한 한 분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웃지 못하고 찡그린 얼굴이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냈다. 본인도 두 번째라면 서러울 만큼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22년 전 큰머느리를 얻고 나서부터 웃음을 잃었다고 한다.

신혼여행 후에 알게 된 일인데, 머느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언제나 굳어버린 얼굴을 보면서 본인도 함께 웃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머느리보다 더 찡그려진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한번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웃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도무지 웃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래 되지 않아 머느리는 친정으로 보내졌고, 아들도 웃음을 잃어버렸다. 이후 마음껏 소리 내어 웃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웃음치료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웃고 싶었는데, 웃음소리가 갈라지고, 가슴 한구석이 터질 듯 아파 오더라는 것이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아서 웃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웃음치료시간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먼저 머느리를 위해 웃어주고 안아 주었다면 내 인생도 아들 인생도 불쌍한 머느리의 인생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 4번 안아주고 웃어주면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하루에 8번 안아주고 크게 웃어주면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하루에 12번만 안아주고 웃어주면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게 된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크게 웃어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웃음치료를 통해 알게 된 웃음치료의 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1600년경 로버트 버튼이라는 사람은 "한바탕 웃음은 피를 맑게 하고, 젊음과 활기를 주어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우리 속담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조상들은 경험을 통해 웃음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이다. 또한 조선시대 왕들은 웃음내시를 두어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를 하였다. 가족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내가 웃음내시가 되어 가족주치의가 되어 보면 안될까?

이번 주 웃음치료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사례발표가 있었다. 직장암 3기로 항암제 치료를 받는 도중 백혈구 수치가 매번 정상범위보다 낮아 연기되거나, 백혈구 촉진제를 투여하기 일쑤였는데, 놀랍게도 웃음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실제 웃음은 피를 맑게 하는 수준을 지나 면역체계 시스템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웃음치료가 되어 본인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자들을 위해 웃음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요즘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암환자들로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다. 세상 끝에서 절망하지 않고, 세상 중심에 서서 세상을 향해 함께 크게 웃었더니 그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웃음치료사로서 성공이라는 진한 맛을 느끼고 있다.

웃음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공식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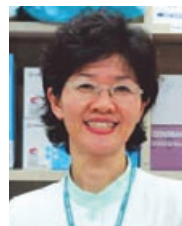
웃음은 + 건강을 더해주고

웃음은 - 스트레스, 근심, 걱정을 빼주고

웃음은 × 행복을 곱해주며

웃음은 ÷ 희망, 사랑, 꿈을 나누어준다.

그리고 나는 웃음치료를 통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다이어트를 성공시켰다. 이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세상 중심에 서서 세상을 향해 크게 웃어라. 어느새 성공해 있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KKH01**



이임선 웃음치료사

웃음치료 간호사로 활동 중인 필자는 국내 최초의 유머로서실을 운영하면서, 서울대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직원 및 환자들의 웃음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국대 및 국제 레크레이션&한국건강웃음협회 웃음치료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유머와 웃음치료학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문화지능, 이 시대의 생존전략

문용린 서울대 교수 / 전 교육부 장관



글 로벌 시대에는 생존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이 세계화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바꿔야 할 수많은 변신 노력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다국적, 다문화 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 싱가포르의 유명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CQ(Cultural Quotient) 즉, 문화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들은 최근 펴낸 <CQ : 문화지능>이란 책에서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계인을 상대로 교류를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각양각색의 세계인들이 담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미국에서는 매뚜기가 해충이지만 중국에서는 애완용이고, 태국에서는 애

피타이저입니다"라는 홍콩 상하이은행의 광고 문구를 인용하면서, "문화는 한낱 곤충의 의미까지도 다르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메시지를 의미심장하게 전한다.

예컨대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간단한 제스처 하나가 문화권에 따라 칭찬과 격려가 되기도 하고, 경멸과 증오의 표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영어권 문화에서 엄지손가락은 넘버 원 즉, 일류라는 표시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홍콩에서 일어난 한 항공사의 예를 든다. 어떤 기념일을 맞아 항공사에서는 탑승객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사하기로 하고 하얀 카네이션을 제공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중국인 탑승객들은 그 선물을 꺼려하였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하얀 꽃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화를 모르면 이런 실수가 연발한다. 문화지능은 바로 이런 부작응 행동을 예방한다.

이렇게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들도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 문화지능이란 이와 같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지하고, 표현하고,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교수들은 낯선 문화적 환경과 타인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능력인 문화전략적인 사고와 새로운 문화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행동할 수 있는 문화적 동기와 문화적 행위를 통해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문화지능의 개념 틀을 도입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이들이 제안한 문화지능에 나의 상상력을 조금 보태면, 미국의 남북전쟁은 다양성 관리를 위한 문화전쟁이었고, 링컨은 높은 문화지능 덕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히틀러의 게르만 우월주의는 그의 낮은 문화지능의 표현이며, 유태인의 학살은 다양성 관리의 실패가 보여준 잔해이다.

얼마 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인의 문화지능을 우려하면서 권고안을 냈다. 단일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집착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성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단지 외국인에 대한 다양성 관리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한국사회처럼 평가르기가 분명한 나라도 드물다. 조선시대의 망국적 당쟁도 문화지능이 낮은 관료들이 국가 다양성 관리에 실패한 증거이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긴장과 갈등도 다양성 관리 능력으로서의 문화지능의 미숙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지능은 단지 기업의 세계화나 다국적 사업의 전개를 위한 경영전략으로만 국한할 개념이 아니라 21세기에 보편화될 지구촌 생활에 필요한 인간의 보편적 지능을 이야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세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증오, 그리고 차별의식을 어떻게 줄이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문화지능 개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KCHN**



썬죽, 이젠 혁명이야!



3000기압으로
까칠했던 100% 발아현미까지
고소하고 부드럽게!



왜 썬죽일까?

기존의 즉석밥과 달리 초고압 식품공법 3,000기압으로 세계
쿠킹한 밥으로, 밥맛과 영양을 요리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밥알부터 다르다!

높은 압력으로 쌀알의 기포를 빼내 내부의 전분입자구조가
치밀해지므로 더 탱글탱글하고 찰진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잡곡밥이 더 맛있다!

100% 발아현미밥은 물론 8곡밥까지, 초고압 기술로 더 부드럽고
영양이 살아있는 잡곡밥이 썬죽의 큰 장점입니다

맛있는 초고압 - 썬죽

X4



리얼 엔터테인먼트 TV.

- 영화/스포츠에 빠지다! - X4PLUS 패널의 다이내믹 영상
- 게임에 강하다! - 최적화 게임모드의 버추얼 영상
- 절전에 감동받다! - 5단계 절전 모드로 소비전력 최대 40% 절감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X4]

XCANVAS PDP 엔터테이너



신제품 50PB3DP1 127cm(50 inch)